

“美 십대, 복음에서 가장 멀어져... 우리 선교자는 스크린”

미주 CGN 20주년 기념예배
23일 열반인 온누리교회서
미주 넘어 중남미로 미디어 선교
확장 비전 선포

CGN 미주 지사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8월 23일(토) 오후 4시에 열반인 온누리교회(박신웅 목사)에서 감사예배를 드리고, 지난 2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나누었다.

이날 예배에 앞서, 오후 2시에는 CGN 20주년 특집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 유진주 감독)의 시사회가 있었다.

일제 강점기,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일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작품은, 이름 없이 복음만을 남긴 일본 최초의 해외 선교사 노리마츠 마사야스(乘松雅休, 1863-1921)와 일본의 신사참배에 저항한 오다 나라지(織田櫛次, 한국명: 전영복)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1896년, 명성황후 시해 소식을 들은, 노리마츠 마사야스 목사는 조선인들에게 일본의 만행을 사죄하고,



CGN 미주 지사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8월 23일(토) 오후 4시에 열반인 온누리교회(박신웅 목사)에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 기독일보

소망을 잃은 조선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선으로 향했다. 조선에 도착해, 조선인 청년에게 한글을 배우고 곧바로 노방전도를 나가지만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냉대를 받았다.

그는 조선인과 같은 옷차림을 하고, 한옥에서 생활하며, 수원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다.

또 다른 일본인 선교사 오다 나라지(織田櫛次, 한국명: 전영복) 역시 사죄하는 마음으로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선을 찾았다. 일본인 이란 이유로 배척을 받으면서도, 1천여 명이 모인 숭실대 강당에서 신

사참배 반대하는 강연을 하다 일본 당국에 체포돼 고문을 받고 1939년 추방 이후 일본에서 조선인을 위한 사역을 이어갔다.

영화 상영에 이어, 기념 감사예배가 박신웅 목사의 사회로, 박은성 목사 대표 기도, 전진국 CGN대

표 환영인사, 성경봉독, 강준민 목사 설교, 이영선 목사 축사, 기념 영상, 황지수 지사장 비전발표, 이정엽 목사 중보기도, 구봉주 목사 축도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진국 대표는 “하용조 목사님의 ‘Acts 29’ 비전에 따라 선교사를 위한 방송으로 시작해, 미주를 비롯해 6개국 해외지사를 통해 1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며, 미주 지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미디어 선교 전진기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적이고 창의적 방식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글로벌 선교 미디어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는 “중남미를 포함한 아메리카권에 대한 특별한 소명이 있다”며,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선교사를 미국이나 한국이 파송하는 시대가 아니고 남미 교회가 세계 선교를 앞장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미주 CGN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축사했다.

주디 한 기자 →2면에서 계속

배우 오윤아와 함께하는 밀알의 밤

2025 밀알의 밤이 오는 10월 3일(금)과 5일(주일) ‘돌보심’(He Cares for You, 베드로전서 5:7)이란 주제로, 배우이자 자폐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오윤아’ 집사를 메인 게스트로 초청하여 그의 인생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지난 2000년 ‘사이버 레이싱 퀸 콘테스트’ 우승으로 레이싱 모델로 활동한 오윤아 집사는 《올드 미스 다이어리》, 《연애시대》, 《언니는 살아있다!》, 《한 번 다녀왔습니다》 등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2006 SBS 연기대상 최우수 조



연상>과 <제 28 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드라마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민선 기자 →2면에서 계속

트럼프, 한국교회 압수수색에 우려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서
해명 “특검은 국회가 임명, 저의
직접 통제 벗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교회와 군사 시설 압수수색 의혹을 두고 우려를 표명했다.

25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당국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면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한 특별검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범위가 아니라고



25일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

나?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는 글을 게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홍은혜 기자 →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시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율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한국 7 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면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 213.820.3704
MARC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ADU 전문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25년 전통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213-310-1800

BT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전기세 50~90% 절감

FRE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합니다.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olarsdesign.com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5년 설치 시)

- 원금 회수 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LA 213.500.8000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OC 714.702.0151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미주도산기념사업회, 도산 심포니 오케스트라 창단 공연

한인 디아스포라 정체성 확립과
이민 역사 알리기 위해 기획

미주도산기념사업회가 광복 80주년 기념해서 도산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지난 19일(화) 오후 7시 30분 LA 다운타운 월트 디즈니 콘서트 훌에서 창단 공연을 열었다.

이번 공연은, 창작 뮤지컬 도산의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오케스트라와 합창, 성악 무대를 결합한 음악 형식으로 표현했으며, 성화장로교회 이동진 목사가 나레이션으로 각 장면의 상황을 설명했다.

무대에는 55인조 도산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가운데, 테너 최원현이 도산으로, 바리톤 김경태가 이토 히로부미로, 손나리가 도산의 부인 이혜련으로, 김한나가 유관순으로 분했으며, 테너 오정록과 소프라노 김하빈이 듀엣 무대를

통해 도산과 부인의 사랑을 음악에 담았다.

‘우뚝서리라 도산’, ‘평화의 나라’, ‘애국 행진가’, ‘거국가’ 합창 공연에 이어, 한국 가곡 ‘고향의 봄’과 ‘그리운 금강산’을 관객이 함께 부르며 무대를 마무리했다.

곽도원 미주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회장은 도산 정신은 ‘애기애타’(愛己愛他) 즉 곧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며, “초기 미주 한인 선각자들은 바로 이 사랑의 정신을 따라 가난과 차별 속에서도 서로를 세워 주었고, 조국의 독립과 미래 세대를 위해 삶을 기꺼이 헌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산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확립할 수



미주도산기념사업회가 광복 80주년 기념해 도산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창단 공연을 열었다. ©Musical Dosan / SeaSun Theatre Artist Group

있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 기대를 밝혔다.

이민 역사를 기억해야

이번 무대의 총연출을 맡은 클라라 신 무대예술인그룹 시선 대표는

“음악을 통해 도산 선생님과 대한

민국의 역사와 또 미주 이민의 역사를 알리고자 이 공연이 기획됐다. 미국에 왜 도산 우체국이 생겼는지 동상이 있는지 도산 인터체인지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모른다. 미국 사람들이 도산의 날(Dosan Ahn Chang Ho Day)을 제정하고, 동상도 세웠는데 정작 미주 동포들은 이분의 삶을 잘 모른다.”며 이 공연을 기획한 의미를 밝혔다.

그는 “도산 선생은 조국의 독립뿐 아니라 미주에 흩어진 한인들을 모아 단체를 세우고, 동포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헌신하셨다. 이민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며 “뮤지컬 도산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도산의 이야기와 함께 대한의 역사와 이민 역사를 전하는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선 기자

→ 1면 기사 <십대, 복음에서 가장 멀어져...>에 이어서

황지수 지사장은, ‘미주 CGN이 앞으로 20년 미국에서 선교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위해, 지난 1년 간 청년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온라인 리서치를 실시했다며, 이를 통해 얻은 결론과 비전을 나누었다.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청년들이 있는 여러 곳을 많이 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온라인에서 리서치를 진행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몇 가지 있다. 미국 십대들이 기독교에서 가장 멀어진 시대가 되었다. 이 청년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조사해 봤더니, 다 스크린 앞에 있었다. 스크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전 세계에서 탑이다.”

미국 청년들이 하루 평균 8시간 39분을 스크린 앞에서 보낸다. 10대들이 특히 티톡, 유튜버, 게임 같은 플랫폼들을 소비하면서 하루 평균 8시간 39분, 평일에는 한 7시간 정도, 일주일에 33시간을 스크린에서 보내는데 잠자는 시간보다 길다.”

“청년들을 만나서 물어봤는데 크리스천 십대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고,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의 미션 필드는 스크린이 되어야 한다. 특히, 동영상 시청 시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CGN 아메리카는 미주 지역에 있는 10대들 20대들이 스크린을 통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의 첫 번째 미션으로 삼았다. 앞으로의 20년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중남미 사역 확대에 대해서, 3년 내에 중남미 제작센터를 설립하고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의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GN 아메리카의 2024년 핵심 프로젝트 ‘더 파이널 프로젝트’, 영어권 Gen Z 세대를 향한 새로운 시도인 ‘패스트 캠프’(Fast Camp) 등에 대해 나누었다.

이어서, 이정엽 목사(LA온누리 교회)가 CGN 미주 지사를 위한 기도 시간을 이끌었으며, 구봉주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라는 사명으로 故 하용조 목사의 비전으로 개국한 CGN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왔다.

방송은 TV 로스앤젤레스 지



일제 강점기, 식민지 조선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던 무명(無名)의 일본인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 ©CGN

역 KXLA 채널 44.9, 유튜브 채널 상영회 신청을 받는다. ‘CGN America’, 모바일 ‘Fondant(퐁당)’ 앱으로 시청할 수 있다. 한편, 미주 CGN은 영화<무명> 314-9100

→ 1면 기사 <밀알의 밤>에 이어서

오윤아 집사는 자녀의 자폐 진단을 계기로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임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졌다고 고백한다.

아들 ‘송 민’이 처음 자폐진단을 받았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한 큰 슬픔과 절망을 느꼈지만, 이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능력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오윤아 집사

는 한인 교포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나눌 예정이다.

밀알의 밤을 통해 모금 된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밀알선교단에서는 2001년부터 장애인 학생들에게 장

학금을 수여하기 시작하여 2025년 까지 총 \$3,146,600을 전달했다.

밀알의 밤 티켓은 \$ 20이며, 중앙일보 핫딜 사이트, 밀알의 밤 행사 당일 공연하는 교회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밀알의 밤 일정

- ▶ 10월 3일(금) 오후 7:30 ANC 온누리교회
- ▶ 10월 5일(주일) 오후 6:00 남가주동신교회
- ▶ 문의: 562-229-0001

→ 1면 기사 <트럼프, 한국교회 압수수색...>에 이어서

그는 회담 전 취재진에게도 “최근 며칠간 교회들에 대한 매우 공격적인 단속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도 들어가 정보를 취득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국은

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와 관련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저의 직접 통제 아래 있지 않고,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특검이 미군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통제 체계를 점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회담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을 언급하며 “혹시 그 특검이 정신 이상 자작 스미스 아니냐, 미국에서 데려온 것 아니냐”라고 농담조로 발언해 배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트럼프가 지목한 자작 스미스는 2023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특별검사로, 올해 초 사임 후 오히려 선거 개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여러 특별검사팀이 교회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여의도순복음교회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경기 가평과 서울의 통일교 본부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또한 비상계엄과 내란·외란 혐의를 조사하는 특검팀은 지난달 한미 공

동 운영 오산 공군기지 내 레이더 시설을 수색해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설명을 들은 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으나, 교회 압수수색 뿐에 대해서는 재차 언급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답지 않은 일로 들린다”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물류 1-877-580-2424 사우스 (310)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주정부 허가: MTR-190586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Fully Insured & Bonded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순회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원본한 기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헤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들크림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이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이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리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할로윈보다 ‘홀리윈’... 자녀 보호 위해 교회가 나선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남가주교협
할로윈을 교계 행사로 전환 촉구
홀리 윈, 할렐루야 나이트 진행

미주성시화운동본부와 남가주교협(회장 샘신 목사)이 오는 10월 31일 할로윈을 앞두고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날을 교계적인 행사로 전환시켜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새생명비전교회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홀리윈’ 행사를의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각 교회 교육 디렉터를 초청해 교육 세미나를 여는 방안 등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성시화운동본부는 미주한인 교계가 깨어서 어린 자녀들을 세상 문화로부터 보호해줄 것을 당부했다.

20일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동 대표 송정명 목사는 “매년 10월 31일 해가 질 무렵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갖가지 모양으로 분장한 이후에 집집마다 찾아 다니면서 ‘Trick



미주성시화운동본부와 남가주교협이 오는 10월 31일 할로윈을 앞두고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날을 교계적인 행사로 전환시켜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사진은 20일 열린 기자회견 모습. ⓒ 기독일보

of Treat”을 외치면서 캔디나 초콜릿을 받으려 다닌다. 할로윈의 전통은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이교적인 문화에서 나온 귀신, 사탄, 우상숭배의 문화”라며 “꿈 많은 어린 아이들이 단순한 재미로 하는 놀이 문화에 불과한데 그것을

가지고 용줄하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즐거움을 빼앗아 가야 되느냐고 항의하는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이런 문화는 어린이들이 잠시 즐기는 놀이 문화가 아니다. 몇 가지 현실적인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고 사탄 마귀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지고, 오히려 우상숭배로 연결될 수 있는 사탄 문화이다. 또 현실적으로 어두운 밤길을 걸어다니다 보면 우발적인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토마스 맹 기자

이영선 목사,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아름다운교회 주일예배서
교육목회자 부족 사태 지적
대안으로 평신도 재교육 제시

지난 8월 10일, 아름다운교회(담임 고승희 목사) 주일 2부 예배에서 미주복음방송 사장 이영선 목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말하기 4장 5~6절 말씀을 본문,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구절을 중심으로 오늘날 교회의 현실과 다음 세대를 향한 과제를 진단했다.

그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마음을 열어야 하지만, 그 시작은 어른 세대의 책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팬데믹 이후 교회의 급격한

변화와 어려움을 언급하며, “한인 교회뿐 아니라 미국 주류 교회 전반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한인 교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 청년층의 이탈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가 없는 작은 교회가 늘어나는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과 전략적 준비가 절실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날 젊은 부모들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를 선택하며, 교인 수 200명 이하 교회는 사실상 주일학교 및 어린이 프로그램을 갖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교회가 당면한 이 문제와 관련해 복음방송이 몇 가지 사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



이영선 목사가 다음세대 신앙 계승을 위해,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기독일보

다. ▲목회자의 영성 회복을 위한 세미나와 기도회 ▲“준비된 시니어가 차세대다” 캠페인 ▲주일학교 회복 운동이 그것이다.

“한국교회 80 퍼센트가 주일학

교가 없다. 이제 사역자로 안 된다는 것이다. 주류 신학교에도 신입생 수가 20명 미만이다. 그게 현실이다. 명문 신학교도 마찬가지이다. 사역자를 세워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일학교 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평신도 재교육해야 한다.”

이 목사는 세대 간 소통의 방법을 제시했다. 손녀와 K-pop 콘텐츠를 매개로 대화를 나눈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아이들이 관심 있는 것을 부모 세대가 먼저 이해하고 다가갈 때, 신앙적 지도와 대화가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한편, GBC미주복음방송, 동행과 상생,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가 ‘교육목회자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주일학교 교육 디렉터 양성을 위한 온라인 인증 과정>의 1기 수료식이 지난 8월 23일(토) 미주복음방송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조셉 리 기자

라구나힐스교회 26명에 장학금 수여

라구나힐스교회(립학준 목사) 장학위원회(회장 박종수)에서 2025년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 8월 10일(주일) 교회 본당에서 개최된 장학금 전달식에서, 계동우(UC 버클리), 김솔(CSU 풀리튼), 김연희(사우스베일로 대학) 등 학생

26명에게 각각 \$2000의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도담 파운데이션을 통해 몽골 청소년 20명에게 \$4,800을, 몽골 후데대학교와 간호 지정 장학금 \$2,800를 합해 \$61,600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몽골 유르고교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12년 출범한 라구나힐스교회

장학위원회는 한국에 교회, 학교, 병원, 사회 복지 기관을 설립한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 꿈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다.

한편, 이 교회는 9월 14일 교회 설립 28주년 기념 감사 주일예배를 드린다.



조셉 리 기자

TRUSTED SCHOOL IN TOWN

EDUCATE **ENABLE** **EQUIP**

K-12 PRIVATE CHRISTIAN SCHOOL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CONTACT US!
(213) 487-5437
ncahuskies.org

크렌셔 장로교회, 창립 3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8월 24일(주일) 창립 3주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크렌셔장로교회가 세워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고전 15:10)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거친 파도 가운데에서도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크렌셔장로교회(한현종 목사)는 지난 8월 24일(주일) 본당에서 창립 3주년 감사예배와 임직식을 드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짐했다.



크렌셔장로교회(한현종 목사)는 창립 3주년 감사예배와 임직식을 드렸다. ©기독일보

한현종 목사는 마가복음 12장 13-17절을 본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그는 “데나리온에 가

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듯,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일부의 시간이나 재정이 아니라 “나 자신 전부”라고 강조했다.

한 목사는 “하나님은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천의 삶을 원하신다”며 용서, 섬김과 희생, 그리고 겸손의 삶을 삶에서 살아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인정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권면했다.

설교 후에는 김유청, 백요한 두 사람이 시무장로로 임직하는 예식

이 진행됐다.

임직식에서는 시무장로 김유청, 백요한 두 명이 장립되고 남형웅 장로가 주대됐다. 안수위원회의 안수기도와 공포문 선포 후 장립패와 주대패, 화환이 전달됐다. 성도들은 박수로 새 일꾼들을 축복했고, 한 목사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히 섬기는 장로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준현 집사의 축가후에 한현종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조셉 리 기자

주일 예배: 오전: 10시 30분

EM 예배: 오전 10시 30분

토요 새벽: 오전 6시

주소: 1060 Crenshaw Blvd, LA, CA 90019, 전화: (213) 407-1600

제2회 한국동요부르기 대회

보나뮤직(BONA Music, 원장 이해자)이 주최하는 제2회 한국동요부르기 대회가 10월 11일(토) 오후 3시, 미주평안교회(임승진 목사)에서 열린다.

참가 대상은 Kinder부터 12학년 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타인종도 가능)이다. 참가 부문은 독창과 중창(최대 12명까지)으로 나뉘며, 독창과 중창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참가자는 지정곡 20곡 중 1곡을 선택해 1절만 부르면 되며, 편곡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정곡 목록: 솜사탕(강신숙 작사 · 이수인 작곡), 이슬(김동호 작사 · 작곡), 풀꽃의 말(박수진 작사 · 김정철 작곡), 참 좋은 일(김원기 작사 · 정지원 작곡), 윗놀이(전유순 작사 · 이용수 작곡), 예쁜 아기 곰(조원경 작사), 아기 염소(이해별 작사 · 이순영 작곡), 실버들(이슬기 작사 · 정윤환 작곡), 부채춤(홍명희 작사 작곡),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주고 싶어(정정명 작사 · 강동수 작곡), 다섯 글자 예쁜 말(정수은 작사 · 임수연 작곡), ‘할



수 있어’라고 말해 주세요(곽진영 작사 · 강수현 작곡), 우주 사건기(김요섭 작사 · 송태동 작곡)

참가비는 독창 \$70, 중창 \$150이며, 반주자가 없는 경우 주최 측에 \$20으로 반주자를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9월 1일부터 30일 까지 구글폼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시상은 당일 실시간 접제 후 즉시 진행되며, ▲전체 대상(1명) ▲BONA Music 대회장상 ▲각 부문별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등이 주어진다. 문의: 213-476-6448, 213-300-7214, bonaalee12@gmail.com 참가비는 Pay to the Order: Bona Music으로 체크 발송 가능

나성제일교회 “사랑하고 용서하며 베풀어야”

창립 58주년, 엘리베이터 완공 명예 장로, 권사 취임 예배

나성제일교회(서종천 목사)가 창립 58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본문은 학개 2장 1-9절.

서 목사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며 “세월이 흐르면 사람도 집도 가꾸지 않으면 불편이 없어지듯,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가꾸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복되신 주님이 왕으로 찾아오신다”며 “주님은 이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며, 영광이 충만케 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 전했다.

또한 과거 나성제일교회의 아픔을 언급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교회가 공개적으로 회개의 고백을 했고,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평을 이루고, 서로를 낫게 여기며 위로하고 베풀어야 한다”며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섬기고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가 되어



나성제일교회(서종천 목사)가 창립 58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기독일보

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굳세게 열어가는 하나님의 제일교회

로 세워가실 것이며, 평강의 은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함께하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상기 목사(평강교회 원로)는 권면에서 “교회가 80만 불이라는 거금을 들여 8년에 걸쳐 엘리베이터 공사를 완성했다고 들었다”며 “이처럼 큰 헌신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교회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오늘 이 교회를 통해 세분의 장로와 권사님들이 임직을 받았다”며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은 충성이니라’는 말씀을 불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님께 인도하기를 바란다”며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서 손님과 같았다면, 이제부터는 교회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란다. 충성된 직분을 잘 감당해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명예장로에 이현근, 최호균, 권영애 권사가 취임했으며, 교회 내 엘리베이터 완공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순서는 한선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아버지 밤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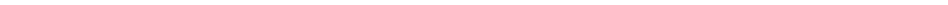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 센터메디컬그룹

제4회 시니어

골프 대회

참가자 이름으로 100% 전액 이웃돕기성금으로 기부!

참가대상

만 64+
시니어

참가비

\$180

지금 바로 예약 신청하세요!

LOS COYOTES COUNTRY CLUB

8888 Los Coyotes Dr, Buena Park, CA 90621

NOV 3

월요일
오전 10시 샷건

문의 (888) 847 - 3098
연락 월 - 금 / 9 AM - 5 PM

총 \$10,000 상당의 푸짐한 상품을
참가자 전원과 함께 나눕니다!

*센터메디컬그룹 제4회 시니어 골프대회의 자세한 일정과 안내는 추후 공지드리겠습니다.

퀴어신학은 이단, 기장 교단 차원의 단호한 결단 촉구

기장 동반대, 25~26일 안성 사랑의교회 수양관서 선교대회 개최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동성애·동성혼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환 목사, 이하 기장 동반대)는 25~26일 양일간 경기도 안성 사랑의교회 수양관에서 '동성애 동성혼 반대 전국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퀴어신학의 확산을 강하게 비판하며 교단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대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롬 12:2)'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성한 목사(전 예장합신 동성애대책위원장, 안양은혜교회 담임), 현숙경 교수(침신대),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가 강사로 나서 각각 퀴어신학과 차별금지법 등 여러 문제를 다뤘다.

첫 강의에서 김성한 목사(전 합신 동성애 대책위원장)는 퀴어신학을 "동성애를 성경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라 규정하며, 이를 교회를 허무는 신학적 도전으로 지적했다. 그는 퀴어신학이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묘사하고, 동성애를 구원의 조건과 연결시키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별 구분 자체가 없어 진다고 말하는 등 정통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이단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사회에도 미디어와 학계, 교육 현장을 통해 퀴어 사상이 확산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저지 등 교회의 각성과 저항을 촉구했다.

두 번째 강사인 현숙경 교수(침신대)는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사상적 흐름을 분석하며 "인류 역사 속 세계관은 고대, 중세, 근대, 포스트모더니즘을 거치며 변화를 겪어왔다. 고대는 초월적 신의 권위를 인정했으나, 근대에 들어 르네상스

와 계몽주의가 인간 간 성과 자율을 강조하면서 사회 전반에 반성경적 사상이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에 주목하며 "과학적 합리주의와 진화론, 유물론은 무신론적 사고를 확산시켰고,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하면서 다원주의와 해체주의를 주류로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 교수는 현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지적하며 "교육·문화 영역에서는 인본주의의 교육과 성적 자유주의가 확산됐고, 사회·윤리적으로는 전통적 도덕이 해체됐다. 철학과 사상에서는 마르크스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이 절대적 가치를 허물었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창조 절대 대신 생태 위기 담론이 강조됐다. 특히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성과 가정 질서를 뒤흔드는 대표적 산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유엔(UN)을 중심으로 반성경적 세계관은 국제적으로 제도화되며 성평등, 성교육, 젠더 정책 등을 세계적 규범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국에 강하게 권고하고, 국내 법과 정책에 유입되면서 전통적 가정관과 성윤리, 생명존중 가치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숙경 교수는 마지막으로 교회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며 "첫째, 분별하라 - 성경적 세계관으로 반성경적 사상을 구별하는 지혜를 찾으라. 둘째, 행동하라 -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성경적 가치를 지키고 전파하라. 셋째, 기도하라 - 영적 전쟁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가 사회 속에 회복



기장 동성애 동성혼 반대 전국 선교대회에 참석한 이들이 단체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기장 동반대 제공

되도록 기도하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강의에서 이용희 교수(바른 교육교수연합 대표)는 차별금지법 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외 사례를 통해 해당 법안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억압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교회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도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회 마지막 날, 기장 동반대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올해 열리는 제110회 기장 총회가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에는 △한신대와 신대원에서 퀴어신학을 가르치거나 주천한 교수·목사 퇴출 △퀴어신학을 옹호한 김희현 신대원장 후보자의 인준 부결 △총회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 등이 포함됐다.

기장 동반대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퀴어 신학은 1990년대 이후 한국 신학

계에 유입되었으며, 2018년 테오도르 제닝스의 방한 강연을 계기로 급속히 확산됐다. 최근에는 한신대 신학대학원과 기장의 일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도권 안착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기장 동반대가 제시한 기장 내 이러한 움직임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기장 총회 교회와 사회 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단독으로 찬성하는 발표를 내어, 교단이 동성애 옹호 교단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기장 총회는 2021년 제106차 총회에서 '성소수자 연구위원회'를 구성했으나 3년 만에 성과가 거의 없어 해체된 바 있다.

셋째, 2021년 10월 6일 한신대 신학대학원 채플에서는 '드라그 퀸 예술'이 등장해 교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음에도 학교 당국은 어여쁜 사과도 내놓지 않았다. 넷째, 제107회 총회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의 명칭을 '성평등위원회'로 바꾸려 했으나 총회의 반대로 부결됐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개

념 차이는 매우 크다. 다섯째, 기장 양성평등위원회가 전국 교회에 실시한 '여성 인권 실태조사' 문항 중에는 성별을 '남성·여성·기타'로 선택하도록 한 전례 없는 항목이 포함됐는데, 항의가 빗발치자 '기타'를 삭제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다. 여섯째, 제108회 총회 문서에는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성 평등'이라는 퀴어 집단의 용어가 삽입되려 했으나 부결됐다.

일곱째, 한신대는 2024년 9월, 퀴어신학을 목사 후보생들에게 가르치고 『퀴어 성서주석』 번역에 참여한 교수를 교목실장으로 임명했다. 여덟째, 기장 동반대가 진행한 서명운동에는 1,124명이 동참했지만, 제109회 총회는 '동성애·동성혼 반대 선언'을 끝내 거부했다. 아홉째, 이번 제110회 총회에서는 목포노회가 '퀴어신학의 이단 성 겹증 및 총회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을 헌의했으나, 총회는 맞불로 '성소수자 목회연구특별위원회 신설'을 헌의했다. 기장 동반대는 "이는 기장의 동성애자 편향적 태도로 비칠 수 있어 교단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예장 합신, 통합, 백석, 대신, 기감 등 주요 교단은 이미 총회 결의로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했으나, 기장 내부에선 여전히 이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장 동반대는 이번 대회를 통해 퀴어신학 확산을 교회의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한국교회와 교단이 성경적 가치 수호를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교회 현금, 50대의 기혼·중직자들이 많이 한다

교회에서 현금을 많이 하는 층은 50대의 기혼자와 중직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는 26일, 기부 관련 최신 통계 자료를 소개하면서 종교단체 현금과 같은 특별 기부형태도 살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 1인당 평균 현금 기부액(기부자 기준)은 59만 원으로 나타났고, 종교단체 기부액은 91만 원으로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또 한국기독교목

회자협의회(한목협)의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에 따르면, 교회 출석 기독교인의 월 평균 현금액은 2017년 17만 6,000원에서 2023년 19만 5,000원으로 소폭 상승했으며, 2025년(목데연) 조사에서는 24만 원까지 높아졌다. 종교별로는 기독교인이 19만 5,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톨릭인은 10만 5,000원, 불교인은 7만 4,000원이었다. 이 밖에 교회 출석자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올해 목데연 조사에서 기혼

자는 월 평균 현금액이 27만 원으로 미흡(13만 원)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직분별로는 중직자가 38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집사 24만 원, 일반성도 16만 원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현금액이 월 평균 3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세 이상 26만 원, 40대 24만 원, 30대 17만 원, 20대 11만 원 순이었다. 목데연은 "특히 주목할 점은 국민 1인당 평균 현금 기부액에서 종교단체 기부가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

며, 기혼자와 중직자의 교회 현금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윤실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2023년)에서 교회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으로 '재정투명성'이 2위권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교회 밖에서도 교회의 재정 사용에 대해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에 목데연은 "교회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 내부적으로 현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공개하고, 성도들이 기부 과정과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나눔의 영적 의미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강조해야 한다. 기부가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를 넘어, 청지기 정신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신앙 행위임을 설교와 교육을 통해 성도들에게 깊이 인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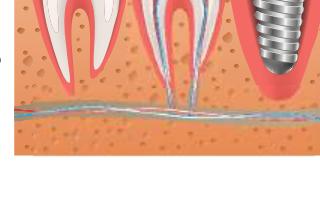
김진영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터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의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올림픽 치과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서울메디칼그룹과 한미메디컬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두 메디칼그룹의 마음을 모아,
5,500여명의 주치의와 전문의가
이제 한 마음으로 여러분 곁을 지킵니다.
더 넓어진 진료와 다양해진 혜택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더 따뜻하게 돌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서울메디칼그룹



스마트폰 카메라로 큐알코드를 찍고 SMG 카카오채널에 방문하세요!

21년을 걸어온 개척교회… ‘답이 없다’는 곳, 하나님이 일하셨다

발렌시아 샘물교회 이건창 목사 부부 간증

“개척교회, 이민교회, 작은교회…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답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계시기에 우리는 지금도 이 길을 갑니다”

지난 21년간 캘리포니아 밸런시아 지역에서 ‘밸렌시아 샘물교회’를 섬겨온 이건창 목사와 사모 안보슬 사모가 TV 기독일보 ‘늘새롭게’ 방송을 통해 진솔한 간증을 나눴다. 2004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 순종해 시작된 교회.

단 세 명으로 시작했던 교회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왔고, 지금도 살아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작은 등불이 되고 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믿음 하나님뿐

이건창 목사가 개척 당시를 회상하며 밝혔다. “33살, 전도사였고, 아내는 29살. 교인도, 후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시작하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부였습니다”

교회는 외진 상가의 구석 빨래방 옆, 리커스토어 옆 공간에서 시작됐다. 2살배기 아들, 교육부 한 명, 성인 한 명, 그리고 목회자 자신. 누군가 보기에는 ‘교회’라기보다는 ‘가정 모임’에 가까웠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하셨다.



발렌시아 샘물교회 이건창 목사와 안보슬 사모

함께 울고 기도할 수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모 안보슬 사모는 6학년 때 아버지를 간암으로 잃으며, 어머니의 전도사 사역을 통해 신앙의 길을 접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어머니가 ‘사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셨지만, 사모는 “엄마는 딸을 모른다”고 웃으며 거절했다고.

“그러나 결국 기도 앞에서 하나님 이 저를 부르신다면, 가장 예쁠 때 가겠다고 기도드렸고, 그 확신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전부터 “목회의 동역자”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출발했다. 남편 이건창 목사는 사모의 콜링을 기다려주었고, 사모는 “같이 가는 사역이 되길 원한다”

며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까지 조용히 기도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는’ 개척의 길을 함께 걷기 시작했다.

성도 한 명 없는 3년,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훈련하셨습니다

이 사모는 개척 초기 3년간 성도 한 명 없이 드려졌던 예배 시간을 되돌아보며 말했다.

“반주도 없고, 회중도 없고, 목사님과 저뿐인 예배. 그런데 하나님께 제게 물으셨어요. ‘반주 없어도 예배 할 수 있겠니? 사람이 없어도 예배자로 설 수 있겠니?’ 그 훈련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사모는 ‘남편이자 담임목사’인

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 예배자로 훈련받았다. 매주 설교를 통해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 중심에 ‘예배’가 있었다고 고백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갑니다

21년 동안 수많은 고비와 아픔이 있지만, 목사와 사모는 한 번도 ‘그만 두자’는 말을 나눈 적이 없다고 한다. “그 말이 입 밖에 나왔다면 그날로 그 만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소명이 너무나 분명했기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목사는 지금도 새벽마다 “저는 목회 잘 못하는 목사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자신은 예전

히 ‘부족한 종’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있다. “100% 복음, 100%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며 살아내는 것, 그 하나님 불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콜링이 있다면, Go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십니다

개척교회를 꿈꾸는 사역자들에게 이 목사는 단호히 말한다. “콜링이 분명하면, 어려움도 고난도 모두 하나님께 감당해 하십니다. 콜링이 흔들릴 때 바람에도 흔들리고 쓰라집니다. 그러나 콜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안 사모도 덧붙였다. “동역 사모의 삶은 ‘같이 가는 삶’입니다.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여야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바이올린이 아니라 바이온이 되었다’는 말, 많이 듣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페이를 받는’ 동역자입니다.”

21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동행으로 채워졌다 고백하는 부부. 그들의 목회는 단지 수치를 남긴 사역이 아니라, 충성된 종으로 살아낸 ‘순종의 발자취’라고 할 수 있다.

밸렌시아 샘물교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25876 The Old Rd, Stevenson Ranch, CA 91381 (Lions Ave & Wiley Canyon 교차로 인근).

이윤준 기자

기독교 세계관으로 분석하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CTC)가 최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교사, 그리고 다음세대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기독교 세계관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자리였다.

CTC는 세미나를 소개하며 “케이팝 데몬 헌터스, 전세계 사람들 이 열광하는 이 애니메이션 속에는 어떤 메시지와 세계관이 담겨 있을까? 이번 특강에서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정체성, 상처, 구원 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라고 했다. 강연은 유경상 CTC 대표이자 평택대 기독교 세계관 MTS 책임교수가 “KPOP

데몬 헌터스’ 세계관 읽기”라는 제목으로 진행했다. 그는 이 작품에 대해 “화려한 무대와 액션을 넘어 한국인의 깊은 정서와 공동체 중심 세계관을 감각적 서사로 담아내며, 정체성 혼란과 공동체 결핍이라는 보편적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특히 주인공 루미의 갈등에 주목했다. 그는 “현대인은 소셜 미디어에서는 완벽한 페르소나를 보여주지만 현실에서는 상처를 감춘 채 살아간다”며, “루미가 ‘데몬 헌터’와 ‘K-팝 스타’라는 두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은 한국인의 관계적 자아 구조를 반영하며, 오늘날 세계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내면의 진실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스클리프트 ©넷플릭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한 고립과 단절이 남긴 상처를 언급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나눌 이가 있다면…’이라는 갈망을 품게 되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루미가 멤버와 팬들의 지지 속에서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한국적 ‘우리주의(Uri-ism)’을 판타지로 표현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작품 속 가사 “홀로 어둠을 밝히라, 우리 노래 부르리라”를 인용하며 “흔자는 어둠이지만 함께하면 빛이 된다는 이 단순하고 명확한 메시지가 전 세계를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유 대표는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는 하나님에 없는 치유, 죄 없는 수용이

라는 약점이 있다”며 “루미의 자기 수용은 상처를 끌어안는 데 머물지만, 기독교는 상처를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완전한 구원과 치유를 이룬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독교가 말하는 공동체는 단순한 감정적 연대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신앙 공동체”라고 덧붙였다.

김세환 기자

TV 기독일보 신양간증

늘새롭게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미주 기독일보 유튜브 신양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 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늘 새롭게’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신양간증하실 분이나

주위에 추천하실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신청 및 문의 : 기독일보 213-739-0403 / chdailyla@gmail.com

* 미주기독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일보’를 검색하세요



美 국무부 “英 낙태 시술소 완충 구역, 중대한 자유 침해”



▲영국 의회 밖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리비아 토시치 볼트 박사. ©ADF International

미국 국무부는 영국 낙태 시술소 주변의 완충 구역이 ‘박해’에 해당되며, 표현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이번 경고는 지난 2월 J. D. 밴스(J.D. Vance) 미 부통령의 개입 이후 나온 것이다.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이 집에서 기도한 것 때문에 공식 경고 서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추진한 스코틀랜드 의원 길리안 맥케이(Gillian Mackay)는 이를 “허위 정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주민들에게 경고 서한이 발송됐지만, 거기에 기도 금지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맥케이는 한 인터뷰에서 “창가에서 기도하는 행위가 창가를 지나가는 사람에 따라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미국 국무부는 영국에서 일반 시민들이 낙태시술소 주변 완충 구역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례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 중에는 은퇴한 생물의학자 리비아 토시치-볼트(Livia Tossici-Bolt)도 포함된다. 그녀는 본마스의 낙태 시설 근처에서 “원하시면 대화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판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2년 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

강혜진 기자

파키스탄 자라왈라 기독교인 공격 2년… 전국적 시위 나서



©Pixabay

파키스탄 편자브주 파이살라바드 지역 자라왈라 지역에서 발생한 기독교인 공격 사건 2주기를 맞아 현지 기독교인들이 거리로 나서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 16일(이하 현지 시간) 자라왈라에서 수천 명의 무슬림 군 중이 꾸란 모독 혐의를 받은 두 기독교인 형제를 빌미로 폭동을 일으켜 교회 25곳 이상과 기독교인 주택 85채를 불태우고 파괴했다.

사건 직후 전국적인 비난 여론이 일었고 300여 명이 체포됐지만, 부실한 수사와 소송 지연으로 대부분 보석 석방되거나 무혐의로 풀려났다.

지난 6월 4일, 파이살라바드 반테리법원은 교회를 방화하고 기독교인 주택을 약탈한 혐의로 기소된 10명을 무죄로 선고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부실 수사 때문에 가해자들이 풀려났다”고 비판했다. 나머지 사건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16일 자라왈라, 라호르, 카라치 등 주요 도시에서는 2주기를 맞아 집회가 열렸다.

자라왈라에서는 ‘피해자 위원회’ 주최로 기념 행사가 진행됐으며, 라라 로빈다니엘 위원장은 “정부가 약속한 보상과 재활 지원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며 “경찰과 일부 기독교인 인사들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영호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월~금 오후 7:30
정년기성경부 주일 오후 2:00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 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니무처럼 뜰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 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예배 오후 6:00
주일학교 오후 11:30 교육관 1층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10:00 본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예배: 오후 6: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예배: 새벽 6:30
EM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choonghyun.org

주일예배: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 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3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창)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유아동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 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리티노 오후 5:00

기독일보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기독일보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기독일보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기독일보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기독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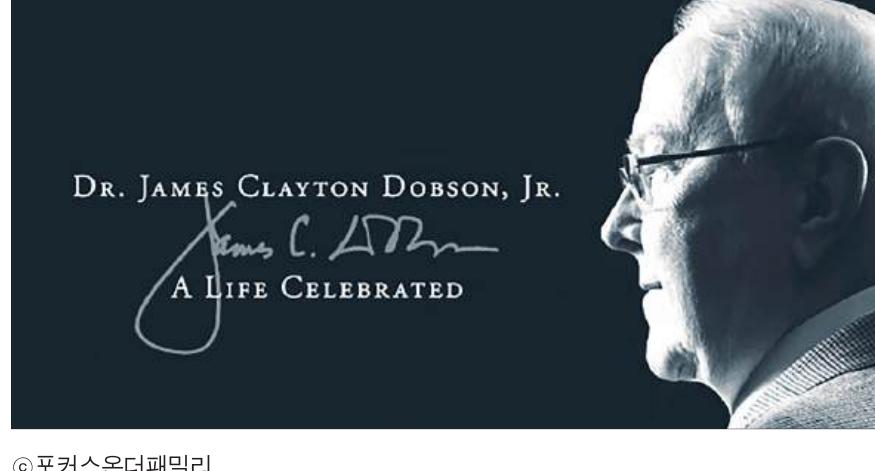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기독일보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포커스온더패밀리’ 창립자 제임스 돋슨 박사 별세



©포커스온더패밀리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 제임스 돋슨(Dr. James Dobson)이 향년 89세로 별세하면서 전 세계 복음주의 진영이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다.

독슨 박사는 라디오 프로그램 ‘패밀리 토크(Family Talk)’ 진행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수십 년간 기독교적 가치를 공공 영역에 전파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 그는 임상심리학자, 저자, 정책 전문가, 그리고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50여 년간 복음주의 운동과 가족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포커스 온 더 패밀리(Focus on the Family)’를 비롯해 ‘가족 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자유수호연맹(ADF)’ 등 주요 단체의 창립과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동료들은 그를 두고 “언제나 사명에 집중한 지도자”라고 기억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돋슨의 죽음을 두고 각계 기독교 지도자와 보수 진영 인사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가족연구위원회 회장 토니 퍼킨스는 “독슨 박사만큼 가족에 긍정적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영향을 끼친 이는 드물다”며 “그의 유산은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잭 그雷함 목사(프레스턴 우드 침례교회)는 “독슨은 단순한 심리학자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도록 가르친 지도자였다”며 “이제 그

는 주님의 품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DF 대표 크리스텐 왜거너는 “오늘 우리는 진리의 강력한 목소리를 잃었다”며 “그러나 그의 담대한 리더십과 복음에 대한 헌신은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랭클린 그雷함(BGEA 회장) 목사는 “독슨 박사는 거의 50년 동안 미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며 “그는 가정과 도덕, 성경적 가치를 변호하며 한 세대를 이끌었다”고 추모했다. 그레 루리(하비스트 크리스천 펠로십) 목사는 “독슨의 흔들림 없는 사역과 가정 사역에 대한 헌신은 나와 하비스트 사역 전체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캐롤 토바이어스(내셔널 라이트 투 라이프) 회장은 “독슨의 생명운동에 대한 공헌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며 “그의 목소리와 비전은 앞으로도 생명 수호의 대의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에런 베어(센터 포 크리스천 버추 회장), 조셉 디수자 인도 성공회 대주교 등 세계 각국 지도자들도 돋슨을 “기독교 가정과 결혼을 위한 가장 위대한 목소리 중 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그의 사역을 기렸다.

이미경 기자

저스틴 비버 “용서와 사랑을 주신 예수께 감사” 신앙 고백



팝스타 저스틴 비버. ©기독일보 DB

다”고 고백했다.

비버는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 세례를 받았으며, 2020년에는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그 경험을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

2021년 부활절에는 첫 복음 앨범인 ‘Freedom’을 발표하고, 같은 해 ‘The Freedom Experience’라는 제목의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천들러 무어, 캐리 조브 등 유명 워십 아티스트들이 함께했으며, 약 2만 명의 참석자가 흡리스와 소외계층을 섭기는 봉사 활동에도 참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는 목사 주다 스미스와 함께 온라인 예배를 열어 전 세계 팬들과 함께 신앙을 나눴다. 2019년에는 ‘은혜(grace)’라는 단어를 오른쪽 눈썹 위에 새기며 자신의 믿음을 몸에 새기기도 했다. 이 외에도 왼쪽 다리에 새긴 예수의 이미지, 가슴에 새긴 십자가, 왼쪽 팔에 새긴 그리스도의 그리스어 십자가,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밭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시편 119:105)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타투 등 그의 몸 곳곳에는 신앙을 상징하는 문구와 그림들이 새겨져 있다.

최승연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침이기도회(미지역주) 오후 8:30
2부예배 오후 11:00 세번예배 오후 5:30(화-금) 오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김성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부 07:30AM -부 09:00AM -평일(월~금) 06:00AM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예배 06:00AM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gmc.org

최현규 담임목사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령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학교예배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19 Email: joonim0623@gmail.com

장수영 담임목사

대예배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이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천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학년)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어부 (24개월 이하) 11:00 AM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church.com

강문수 담임목사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로뎀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병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이기페)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임금제세)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초등부 오전 11:00 Youth 금모모임(금) 오후 7:30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awn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어,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후 6:00(화-토)

온혜와 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이충환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성찬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7:00

발렌시아 샘물교회

www.icccla.org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363-5887 iccc.office@gmail.com

지동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예배 오후 5: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밤예배 2부 오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Y 89147
T. (702) 489-2999 www.joongangly.org

최길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후 10:15 (한국어, 스페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171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www.fgvlchurch.com/

송삼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42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lvkcc.org/lvkc/index.php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밤예배 2부 오후 11:30
수요예배 저녁 7:00 새벽기도회 월-토 5:30 AM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 685-2212, wooriojoechurch.com

임명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10:30 AM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30 AM

기독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기독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기독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9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원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TOWING

헤어 것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일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수비조크피(Beauty College) 최대 한국인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전문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차나무 오방면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동행과 상생 '교육 사역자 12주 훈련과정' 성료

다음세대 사역을 위한 새로운 방안 제시

지난 8월 23일(토), 미주복음 방송에서 동행과 상생 교육사역자 12주 훈련과정 수료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수료식은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이 앞장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셨다"며 "이번에 교회 사역자들이 한층 전문성과 영성을 훈련받았다"고 크게 만족감을 표했다.

상생 그리고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이 앞장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셨다"며 "이번에 교회 사역자들이 한층 전문성과 영성을 훈련받았다"고 크게 만족감을 표했다.

수료생들의 간증

이번 훈련 과정에 참여한 가스펠교회 김혜선 사모는 "동행과 상생의 배움이 전 세계 한인 교회에 전해질 수 있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 고민하는 작은 교민 교회들도 사역에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사모는 특히 "글로벌 청소년 사역에 대한 강의가 가장 큰 울림을 주었다. 신앙 교육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세계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실제 선교와 봉사 현장에 나아가도록 돋는 사명임을 배웠다"며 깊은 감동을 전했다.

페이튼 박(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집사는 "한국계 미국인 정체성과 기독교 교육, 부모 교육과 협력에 관한 강의가 가장 인상 깊었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문화적 인식의 중요성과 신앙 형성에서 가정이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 외에 한 참가자는 "처음에는 중소교회 교육부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시작했지만, 과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12주 과정 중간쯤 큰아이가 중고등부의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 이 강의들이 참 많이 도움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지혜로 아이들과 교회 교육부를 바라보는 시선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간증했다.

유치부 사역자는 "신학과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교육전도사를 세우기 어려운 교회를 위해 동행과

그동안은 경험과 열정만으로 감당해왔지만, 이번 과정을 통해 제 사역에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놓치고 있던 점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며 "예배가 더 깊이 있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 위해, 저 스스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준비해야 함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님 Church 박인수 목사는 "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지 않았음에도 교육목사로 사역하게 되면서 미주한인교회의 교회학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한인 1.5 세·2세의 문화적 정체성과 신앙적 정체성 사이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앞으로 사역 현장에서 자녀 세대를 만날 때 외적 모습뿐 아니라 내면의 갈등과 고민까지 헤아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계획과 전망

동행과 상생 사무총장 송병주 목사는 "하반기에는 2세 사역자와 1세 교회 리더들의 소통과 동역을 강화하는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행과 상생 1기 수료생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정기적인 모임과 후속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다. 내년 초 12주 한국어 과정 2기를 다시 모집할 예정이다.

엘에이 아리랑 연합 소식

한편, 엘에이 아리랑 연합의 세 교회(세계선교교회, 나성재건교회, 올림픽장로교회)는 지난 여름 청소년 캠프에 이어, 9월 5일(금) 저녁 6시 세계선교교회에서 연합 찬양집회 "Taste and See the Goodness of God"을 개최한다.

앞으로 정기 찬양집회와 겨울 수련회도 계획 중이며, 어린이 연합 사역도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미주복음방송 기사 제공



8월 23일 미주복음방송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교육 사역자 12주 훈련과정〉 수료식 참가자 단체사진(왼쪽). 주님 CHURCH 24일 주일예배 중 진행된 수료식(오른쪽).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25년 건축의 딛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K-Urban Builders

CSLB # 854389

견적
상담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O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 강준민 칼럼

감정의 온도를 지켜 마음의 고요를 가꾸십시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감정이 수시로 변하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감정은 만남과 사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지성을 사용하기보다 감정에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좋다고 생각이 되어도 기분이 나쁘면 선택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기분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감정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 주신 소중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은 우리 내면의 상태를 알려주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감정은 삶의 방향과 관계를 좌우합니다. 감정

은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감정을 잘 다루면 큰 유익을 얻지만 감정에 끌려 다니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릴 때 주위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감정을 왜 잘 다스려야 할까요? 감정을 잘 다스릴 때 내면의 고요함을 가꿀 수 있습니다. 고요는 영혼의 언어입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잔잔한 호수처럼 마음이 맑고 밝아집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어려운 상황도 잘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릴 때 마음의 온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감정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격한 감정에 말이 격해집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됩니다. 감정의 온도가 너무 차가우면 냉혹해집니다.

감정의 온도가 차갑게 되면 사람이 식게 됩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분노라는 감정은 잘 다스리지 않으면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분노는 잘 다스리지 않으면 폭력이 되고, 폭력이 격해지면 파괴적이 됩니다. 무엇보다 절제되지 않는 분노를 통해 사탄이 틈타게 됩니다(엡 4:26-27).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절제입니다. 모든 분노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의분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의분이라고 절제되지 않으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떻게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감정을 잘 인식해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감정을 무시하고, 억누르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화가 났는지, 왜 불안한지, 왜 섭섭한지, 왜 억울한지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인식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곧 감정지수가 높은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할 때 감정을 잘 다스리게 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만 우리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십시오. 빅터 프랭클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 감정은 자극을 통해 생겨납니다. 자극에 즉각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생각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서로에 가장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반응하십시오.

셋째, 심호흡을 잠시 하면서 마음을 진정하십시오. 말을 아끼십시오. 심호흡은 감정의 급류를 끊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감정이 너무 격하다면 잠시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비운 후에 심호흡을 몇 번 하십시오. 심호흡은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잠시 몇 초, 몇 분이 우리 미래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께 감정을 맡기십시오. 시편을 읽어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자

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히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표현을 통해 치유됩니다.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때 감정 속에 담긴 독소(毒素)가 제거됩니다. 좋지 않은 감정을 잘 해소할 수 있는 자신 만의 전략을 갖도록 하십시오. 말씀 묵상, 기도, 영혼의 일기 쓰기, 산책이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안전하게 허러 보내는 훈련을 하십시오. 모든 감정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외부의 자극에 따라 감정이 변합니다.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 그때 그때 적절하게 해소하십시오. 쌓아둔 감정은 언젠가 폭발하게 됩니다. 폭발하면 여러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공동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섯째, 성령님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온유의 영이십니다. 절제의 영이십니다. 분별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지혜의 영이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인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잠언은 노하기를 더디하며, 감정을 잘 다스릴 것을 거듭 부탁합니다. 그 이유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이며,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잠 16:32).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에너지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정을 잘 다스릴 때 우리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도 그 은혜의 열매로 더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 진유철 칼럼

원칙이 지켜지는 공동체가 승리한다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미국이 9.11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2조 2,600억 이상의 달리를 쏟아 부었지만, 먼저 바른 원칙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밀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결국 빙손으로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사역할 당시 남미는 풍부한 자원과 좋은 자연조건 등으로 살기에 괜찮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경제와 사회 모두 추락하

는 나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나라이 브라질은 아마존의 자원을 비롯하여 모든 것에 풍부한 나라였었고, 아르헨티나는 1·2차 세계대전 중 식량수출로 20세기 초·중반만 해도 세계 5위권 경제 대국이었고,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5위 안에 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서면서, 베네수엘라는 10여 년 만에 '남미의 북한'으로 전락했고, 아르헨티나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20번이나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브라질에선 페루기 정책이 남발되어서 빙ゴ온, 보조금인 '보우사 파밀리아' 대상자가 2003년 1600만 명에서 2013년까지 5500만 명으로 늘었고, 화폐의 가치는 2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인 원인은 포퓰리즘으로 정권을 잡은 정부가 걸핏하면 기업을 국유화해서 좋은 자리를 권력자의 측근에게 나눠줬고, 2008년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 원자재 값이 폭락하면서 빙국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권유지를 위해 미국 혹은 자본주의를 탓하는 부정적인 리더십과 원칙 없는 퍼주기와 방만한 복지로 당장을 모면하려고만 하니까, 올바른 동기부여가 안 되고 성장 없는 악순환이 계속된 것입니다.

은혜로 봉사하는 교회 공동체는 더더욱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하고 또 지켜져야 합니다. 아무 것도 없었을 때는 괜찮지만 선한 활동이 많아지고 나눌 것이 생기면 기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별 것 아닌 수건 한 장, 빵 하나로도 마귀가 주는 섭섭함의 빚에 걸려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신 교회는 천지는 없어져도 일점일획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원칙을 바르게 세우고 잘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3:16-17)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어제 청소한 집에 오늘 또 먼지가 가득해지는 것처럼 나의 마음과 생각은 금방 욕심과 죄로 더러워집니다. 싸움터에서 전쟁하던 디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했지만, 며칠 그 전쟁터를 빠져나와 낮잠 자며 게으름을 피우다가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편하고 재미있게 즐기는 'Bar'나 'Lounge'나 'Hangout spot'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매일 매일 그날의 만나를 거둬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다윗이 대적과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치열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L.A.나성순복음교회는 원칙이 지켜지는 공동체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롬!

202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보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계 최고의 교수진

카카오톡 채널: "탈보" 검색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유튜브: "탈보신학교" 검색

설립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I-20) 발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퍸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경영사학, 비영리단체사학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www.wmu.edu

4
8
시간
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의
맛!

송영 뜨끈 설렁탕

아침 스페셜

매일 | 7:00AM ~10:00AM

표고우거지해장국
or 통큰설렁탕
or 북어국 } \$10⁹⁶_{+tax}

GOOD MORNING SPECIAL



화요일 Only 투고스페셜

- ▶ 곱배기설렁탕 \$18⁵⁰_{+tax}
- ▶ 곱배기해장국 \$18⁵⁰_{+tax}
- ▶ 곱배기도가니 \$26⁵⁰_{+tax}

목요일 Only(1+1) 투고스페셜

갈비탕 or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해장국을 무료로 드립니다.

\$22¹⁵_{+tax} { 갈비탕 or 도가니탕
& 표고우거지해장국



5주년기념 스페셜 Coming Soon

Uber Eats 빌리버리 합니다.

(213)277-1339 | (213)263-9446
2717 W. Olympic Blvd. #108, Los Angeles, CA 90006

단체주문 환영
주 7일 오픈 7AM ~ 10PM
(구)베버리순두부 자리

김영한 칼럼

부활하신 예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IV)



김 영 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샬롬나비상담대표

부활 사건과 빈 무덤은 같이 간다

예수 부활사건과 빈 무덤의 사실은 함께 간다. 저자는 예수의 부활과 관련한 빈 무덤의 역사적 진실을 다음 같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예수가 부활하였기 때문에 그의 무덤은 비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의 빈 무덤에 관하여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은 제자들이 아닌 여인들이었다. 여인들에게 증인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던 가부장 문화권에서 증인의 자격이 없던 여인들이 부활 증인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여인들이 빈 무덤 사건의 증인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것이 제자들이 꾸며낸 시나리오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여인

들이 부활 사건에 대한 증인 됨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예수의 빈 무덤 사건은 예수가 역사에 나타난 다른 종교들의 교주들인 공자, 부처, 소크라테스, 무함마드와 다른 그의 존재의 특성이다.

둘째, 빈 무덤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문이 나온 것이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현장의 병정들에게 뇌물을 주어 제자들이 자기 선생의 시신을 밤에 몰려 훔쳐갔다는 소문을 퍼트리게 하였다. 마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공모한 사실을 다음 같이 기록하고 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마 28:11-15). 로마 군인들은 돈을 받고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밤에 도둑질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허위 사실 유포 조치는 예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셋째, 부활 사건 자체가 역사적 진정성 질문에 있어서 당혹성의 기준을 충족시킨다.

부활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의 사건에 대하여 당혹을 금치 못하여 숙직(宿直)하던 자들과 같이 무서워하며 두려워하였다(마 28:4-5, 8). 마가는 여자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입을 열지 못했다고 보도 한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마 16:8).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을 때 제자들은 현대의 회의적인 불신자들과 같은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여인들이 히스테리 반응을 일으켰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마 16:11).

넷째, 빈 무덤이 사실이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생겨났다.

예수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당시 십자가에 처형된 수치의 상징인 예수가 “그리스

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당시 유대교에서 신성모독으로, 로마 종독에 의하여 십자가라는 수치스러운 극형에 처형된 수형(受刑)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다. 그가 부활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목숨이 두려워 도망간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다.

다섯째, 빈 무덤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부활 케리그마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당시 유대교라는 제도 종교의 박해를 받던 예수 추종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초대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동력은 예수의 부활 사건과 더불어 그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독일 신약학자 울리히 윌케스(Ulrich Wilckens)는 무덤에 시신이 놓여 있는 한 당시의 예루살렘에서 부활 선포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제자들이 만일 환상을 보았다면 예수의 무덤이 비지 않았을 것이며, 제자들의 신앙고백은 당시에 이미 거짓된 체험으로 판명되었을 것이다. 빈 무덤이 부활 자체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부활신앙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계속>

신성욱 칼럼

신앙 전수의 중요성



신 성 옥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

백 년 동안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을 유지했고, 국민 대다수가 크리스천이라 고백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세대가 지나면서 변화가 찾아왔다. 2세들을 향한 신앙 교육이 느슨해지고,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통이 약해졌으며, 교회가 점점 다음 세대보다 현 세대의 편의와 필요에만 집중하면서 복음의 전승이 끊어져 버렸다. 2022년 인구조사 결과, 스코틀랜드에서 자신을 크리스천이라 밝힌 사람은 불과 20% 남짓. 반면, 절반이 넘는 51%가 “나는 어떤 종교도 믿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수백 개의 예배당이 문을 닫았고, 지금은 관광객이 사진을 찍는 ‘옛 건물’로만 남아 있다. 종교개혁의 심장이라 불렸던 그 땅이, 이제는 심장 박동이 멈춰버린 비극의 나라가 되고 말았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7)

불과 한두 세대 만에 ‘기독교의 나라’가 ‘세속화된 나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지하게 가르치지 않았고, 가정 예배와 말씀 나눔이 사라졌으며, 교회 공동체가 복음 안에 다음 세대를 품고 양육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소홀

히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스코틀랜드 곳곳에서 교회들은 문을 닫고 세상의 건물로 변해갔다. 매년 방문하는 영국 교회들과 별 차이가 없다.

글래스고(Glasgow)에서는 19세기 지어진 웅장한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어 사람들이 찬송 대신 술잔을 부딪치며 세상 노래를 부르고 있고, 에든버러(Edinburgh)에서는 오래된 예배당이 카페와 공연장으로 개조되어 더 이상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곳들도 적지 않다.

지금 한국교회 역시 같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예배당은 여전히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학교와 청년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예수 믿는 아이들이 과거 우리 어린 시절에 비해 1/5로 뚝 떨어져 버린 지 오래다.

그러잖아도 결혼을 잘 하지 않고 결혼해서 도 자식을 잘 낳지 않는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한국교회는 대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때에 부모 세대가 신앙을 전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스코틀랜드와 영국과 똑같은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다. 교회는 단지 ‘성도들의 신앙적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사명’을 지닌 공동체이다. 가정 역시 그저 자손을 낳아서 기르는 곳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시키는 일을 하는 소중한 장’이다.

성경은 신앙 전승을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으로 강조한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히브리어는 ‘날카롭게 새기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즉, 자녀의 마음에 말씀을 깊이 새겨 넣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신앙은 저절로 전해지지 않는다. 누군가가 새겨주지 않으면 잊히고, 가르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가정에서 말씀을 회복해야 한다. 식탁 앞에서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작은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회색한 건물이나 편리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스코틀랜드와 영국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이자 소망이다. 경고는, 복음의 전승을 멈추는 순간 교회가 쇠퇴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소망은, 한 세대가 다시 말씀을 불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말씀을 사모하는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 민족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단단히 지지해 주는 등받이 사용으로 편안한 운전을 경험해 보세요.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 장거리 운전하실 경우,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장점 1
나무는 좌석에
기대었을 때
신체에 맞게
윤곽이 잡힘

장점 2
커버 소재는
다이빙 슈트로
제작

장점 3
내구성이 뛰어나며
운전자에 맞게
늘어짐

www.j1mart.com

웹사이트에서 바로 주문하세요.

문의 : 213-434-1170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시라

ΙΧΘΥΣ

러빙워십 찬양 콘서트
익투스 — ΙΧΘΥΣ

Speakers 강준민 목사, 구봉주 목사
박은성 목사, Joseph Lee 목사

**Loving Worship
Praise Team**

Tickets \$10 | 213.357.1565

Guests 조혜련, 브라이언 킴



Saturday [토]
10.04.2025 — 6:30PM

새생명비전교회
4226 Verdant Street
Los Angeles, CA

Sunday [주일]
10.05.2025 — 7:30PM

감사한인교회
6959 Knott Avenue
Buena Park, CA

Friday [금]
10.10.2025 — 7:3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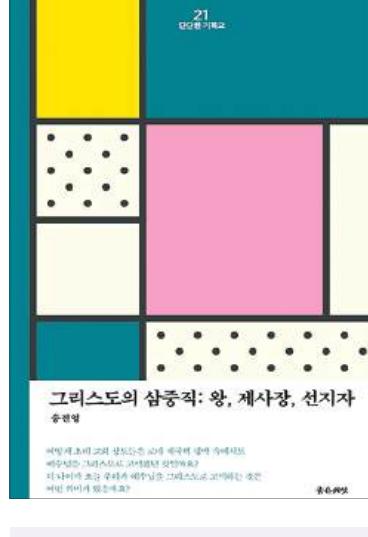
나성영락교회
1721 North Broadway
Los Angeles, CA

LOVING
WORSHIP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단단한 기독교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삼중직, 교회 향한 하나님의 은혜 알게 하는 통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송진영 | 좋은씨앗 | 152쪽 |
8,000원

‘이 책은 <단단한 기독교> 시리즈 21번째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Munus Triplex)에 대해 다룬다. 예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행하신 각각의 역할과 그 의미를 탐구하며, 이를 통해 오늘날 성도들에 게 주는 신앙적 교훈을 분석한다

목회적 적용 가능성: 예수님이의 삼중직 개념을 신학적으로 연구할 뿐만 아니라, 목회적·신앙적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성: 조직신학의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일반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였다

좋은씨앗에서 ‘단단한 기독교’ 시리즈 21번째 책이 나왔다. 이 시리즈 취지가 무엇인지 출판사는 이렇게 소개한다:

“보통의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서 단단하게 자라가는 데 꼭 필요한 기독교의 기본진리를 한 가지씩 다룹니다. … 어려운 신학 용어와 딱딱한 본문과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부담스럽게 다가오던 주제들을, 목양의 언어로 쉽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지루하지 않게 설명합니다. 그리하여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는 단단한 진리로 확신 있게 대답하도록 돋고, 우리의 소중한 다음 세대를 금강석처럼 빛나는 믿음의 군사로 세우도록 디딤돌이 되어줍니다.”

21번째 책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다룬다. 주제 자체가 생소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리즈 취지에 맞게 “쉽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지루하지 않게 설명”한다.

저자는 ‘목양의 언어’로 말하고 쓰는 데 적합한 송진영 목사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직장생활 경험을 해본 터라 성도들의 상황과 수준을 잘 이해하고, 강남일교회, 충주 양문교회를 거쳐 지금은 가좌동광교회 부목사로 섬기기 때문에 목회자의 마음으로 진리를 친절하면서도 정확하게 잘 전달해 준다.

저자가 뒤늦게 만난 개혁주의 신학에 담긴 성경적 진리와 신앙 유산을 이 책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소원과 열정이 잘 드러나는 책이다.

“나는 신학에 전혀 관심 없다. 다만 그리스도만 알고 싶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사람이 만든 이론에 집착하고 성경보다 철학에 더 권위를 두는 것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신학이라는 사실에 철저히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의 성이 아니다.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호칭이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야’와 같다(메시야는 번역하면 그리

스도라, 요 1:41).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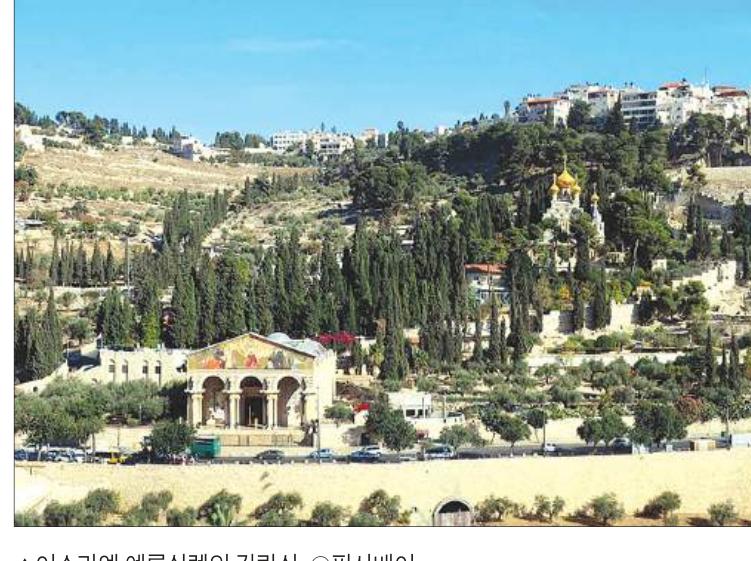
메시야는 어떤 면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분께 어떤 은혜를 얻고 어떤 반응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가? “다만 그리스도만 알고 싶은” 사람이 답해야 할 신학적 질문이 이렇게나 많다. 저자 송진영 목사는 이런 여러 질문에 성경과 신조를 통해 답한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는데, 모든 신자가 동의할 수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 구원론을 앞서 설명하는 이유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 그리스도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각각 맡으신 직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공적 사역, 곧 창세 전부터 계획되고 구약성경을 통해 예언되온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각각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으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을 영구적으로 성취하셨다.

저자는 이 사실을 성경을 근거로 확증하고, 이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기독교 강요, 벨직 신앙고백서 등을 통해 더 풍성하게 설명한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백성들에겐 큰 평화와 기쁨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과 거룩하고 완벽한 하나님 사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시고, 온갖 거짓이 기득한 세상에서 오직 진리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말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한 발 나아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 받은 자를 통해 경험돼야 한다고 권면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를 다스리는 머리이시고, 교회를 중보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감람산. ©피사베이

제사장이시며, 교회에게 말씀하는 선지자이심이 명백한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교회에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며 가르칠 직분자를 세우신다.

‘단단한 기독교 시리즈’가 그 취지 렇게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담당하신 삼중 직을 교회는 계속 의지하고 찬양하고 경험해야 한다.

그들이 본받아야 할 대상은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고,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고,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 예수님이시다. 저자의 권면은 직분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필자에게도 도전이 됐다.

목자는 목자장을 닮아야 할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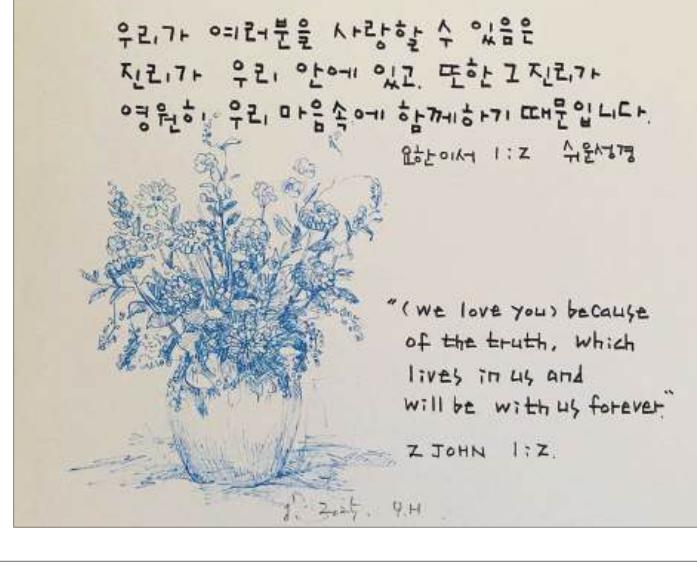
이 있고, 양무리는 목자장을 닮아가

는 목자를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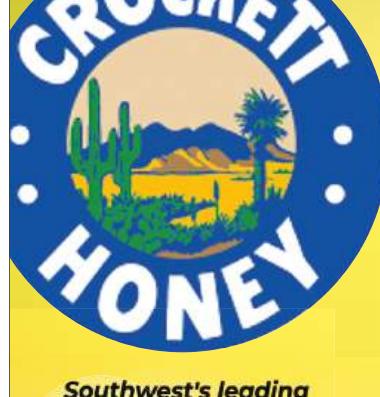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Southwest's leading provider of quality

Desert Honey since 1945!

We offer a wide variety of 100% pure and natural Arizona honey.

자연의 정직함, 건강을 선물하세요

미국 프리미엄 허니 브랜드 –

CROCKETT HONEY

아리조나 사막의 청정 자연이 빛낸 세 가지 특별한 꿀이 건강과 품격을 전합니다.
한국 방문 시, 사랑하는 가족과 친인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꿀·꽃가루·로열젤리의 황금 조합

자연이 준 면역력, 에너지, 항산화 효과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Honey 3lbs

\$25 +tax

① Desert Blossom Mesquite Honey

사막의 야생화와 메스키트 꽃에서 채집된
부드럽고 향기로운 맛!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가득한 천연 꿀



Bee Pollen

\$45 +tax

② Crockett Honey (Original)

가장 순수한 꿀의 기본! 건강한 단맛과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담은 전통의 맛!
차, 토스트,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



Royal Jelly

\$25 +tax

③ Crockett Honey with Royal Jelly

꿀 속의 황제, 로열젤리를 더한 프리미엄 건강식품!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한 영양 강화 꿀!
특별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로 안성맞춤

(Pick up Only)

전화 예약주문 **213-434-1170**

prozusa1@gmail.com

Pick up 장소: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서적 『훈아진언』

한국인들에게 그림으로 처음 선보인 예수 이미지

메리 스크랜튼 기독교 교육 교재
유교 문화로 여성 천대 조선에
여학교 설립하고 교재도 제작
아이들 눈높이로 성경 설명해
53장 중 23장에 삽화 수록돼

유명 화가 대신 사실적 묘사
동방박사, 오병이어, 나사로
최후의 만찬, 예수 승천 등
예수님 공생애 집중적 다뤄
로마 시대 튜닉에 긴 머리
서양 기독교 도상 전형성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Mary F. B. Scran-ton, 1862-1909)는 1886년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을 정동에 세웠다. 고종으로부터 '이화(梨花)'라는 교명과 현관을 하사받으면서, 국가로부터 공인된 교육기관이라는 신뢰를 주었다.

유교를 건국 이념으로 삼은 조선시대에는 여성들이 학문을 닦는 것을 '부도(婦道)'에 어긋나는 일이라 보았기 때문에, 여성은 위한 제도적 교육기관을 만들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여성의 학습기회 박탈 이면에는 유교라는 강력한 정치 이념이 도사리고 있었던 셈이다.

부조리한 현실을 꿰뚫은 스크랜튼 선교사는 여성 역시 체계적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

다고 여기고, 곧바로 실천에 옮겨 한국 최초의 여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이화학당을 설립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스크랜튼 여사는 '선교 보고서(1889)'에 한문을 번역할 수 있는 인력을 요청했다. "이 나라에서는 선교사들이 사역하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경이나 사전, 문법서 없이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 손에 줘여 줄 전도지 한 장조차 없습니다(이고은, 19세기 한중 개신교 전도문서의 번역자와 번역태도 비교, 151쪽)."

스크랜튼 선교사가 머리에 그리고 있던 것은 영국의 작가 파벨 리 머티머(Favell Lee Mortimer, 1802-1878)가 쓴 『새벽 The Peep of Day(1833)』을 번역하는 것이었다. 참고로 머티머는 학교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들 눈높이에 맞춘 주일학교 교재와 아동용 세계사, 지리서, 언어 교재를 쓰기도 했는데, 이 책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려는 취지로 쓰인 아동용 기독교 교육 교재였다. 1833년 피카딜리의 해처드에서 출판되었을 때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선교사들에 의해 세계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읽혔다.

또 이 책은 중국 각 지역에서 『訓兒真言(훈아진언)』으로 중역될 만큼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 스크랜튼 여사는 물론 영어판을 소장하고 있었지만, 저본으로 삼은 것은 미국인 샐리 홀즈(Mrs. Sally Holmes)가 펴낸 중역본 『訓兒真言』이다. 이 책은 산동 지방 기독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던 것 이었다.

『새벽 The Peep of Day』의 주요 용어는 샐리 홀즈의 중역본을 따랐는데, 서양 선교사가 번역자였다면 영문본을 원본으로 삼아 한역본 내용이 영문본과 더 가까워야 했지만 한역본은 중역본에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스크랜튼이 직접 번역에 참여했다기보다 중역본 『訓兒真言』을 한글로 번역한 지인의 조력을 받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학계의 중론이다.

『훈아진언』은 1887년 발간된 존 로스의 한글 신약 전서인 『예수성



▲제30장, 예수- 예루살렘에 나아가신 강론, 『훈아진언』 중, 1894.

교전서』보다 6년 뒤인 1893년 삼문출판사에서 간행된 초기 기독교 문서이며, 이듬해인 1894년 다시 간행하였다.

책의 구성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체가 창조된 과정과 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기르는 내용, 그리고 인간의 영혼, 천사, 마귀, 애담과 하와에 대해, 성경 속 인물과 예수의 생애를 포함하여 총 53장에 걸쳐 설명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23장에 삽화가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삽화는 자유로운 선의 효과를 기초로 책의 내용을 전하고 있다. 유명 화가의 것은 아니지만 사실적인 묘사로 독자들에게 대략적인 줄거리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었다.

『훈아진언』의 삽화는 모친이 아이를 사랑하는 장면부터 예배하러 온 박사들, 바다 위 풍랑, 가나안 혼인잔치, 오병이어 사건, 나사로의 부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 최후의 만찬, 예루살렘 입성, 수십에 찬 베드로, 무덤 강론, 예수 승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훈아진언』에 등장하는 예수의 이미지는 죄인들을 만나고 먹이고 치유하며 바다를 다스리며 함께 울고 웃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그림에서 눈여겨 볼 것은 예수의 이미지가 한국인들에게 그림의 형태로 처음 선보였다는 것이다. 예수의 모습은 로마 시대 튜닉을 착용하고 긴 머리를 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미술사학자 김나원은 "서양 기독교 도상의 전형성이 그대로 표현된 모습"이라고 했다.

지금이야 여러 형태의 예수 그리스도도 초상을 볼 수 있지만 구한말에 그런 도상은 흔치 않았고, 삽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알 수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런 인물 묘사는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려주었다.

이 도상은 한일합방 후 김은호가 조선미술전람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제로

출품했을 때 참고작품으로 활용된 것으로도 추측된다. 포즈는 다르지만 복장과 인물 표

현 면에서 유사한 점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훈아진언』의 예수 이미지는 1920년대 김은호의 〈부활 후〉보다 앞서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의 제작자는 몇 작품이 'Adeney'라는 것 외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미지 편집 과정 중 사람이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책의 삽화들은 여러 나라에서 수정 편집 과정을 거쳐 출판되는 가운데 그림의 일부가 잘려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삽화 제작자는 삽화를 그릴 때 유럽 고전화가들의 작품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제2장 '모친이 아이 사랑하는 강론'에서는 에티엔 조라의 〈엄마들의 모범〉(1740년대), 제29장 나사렛 강론에서는 렘브란트의 〈라사로의 부활〉(1636), 제38장 잔치 예비강론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1630-31), 제50장 예수 승천에서는 렘브란트의 〈예수의 승천〉(1636)을 각각 기준작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앞의 인용에서 보았듯이 스크랜튼 선교사가 이 책을 소개한 데는 선교의 시급성이 가장 큰 동기로 작용했다. 아동용으로 집필된 것이어서 성경을 처음으로 접한 사람이라도 이해하기 쉽게 기술되었기 때문이다.

『훈아진언』은 1차적으로 기독교 교육 차원에서 발간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양반들로부터 '암글' 또는 '언문'으로 전래받던 한글을 전도문서로 만들어 국민을 깨우치게 하는 문명화의 부수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것은 한글의 실용성과 우수성을 깨달은 스크랜튼과 같은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스크랜튼이 설립한 이화학당과 거기서 펼친 교육활동은 우리의 굴곡진 문화와 역사 가운데 빛을 발휘했고, 대중들에게 희망의 불을 지펴주었다. 뜻하지 않은 서구 문화와의 만남은 오랜 기간 망망대해의 섭처럼 고립돼 있었던 한국인들의 의식을 일신하고 눈을 뜨게 만들었다.

서성록 명예교수(안동대 미술학과)



▲제28장, 예수- 만두와 고기로 오천인을 먹인 강론, 『훈아진언』 중, 1894.

2025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2일 ~ 12월 5일까지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B.Th)

목회학석사과정(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기능(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정 통크 쟁정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美 FDA, 낙태 약물 허가 후 26건 사망, 603건 과다출혈 보고”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여성에 대한 폭거” 규탄… 1백만 서명운동 천명

이재명 정부가 낙태 약물 합법화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하나로 추진한다는 소식에 각계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은 8월 25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안전을 무시한 폭거이자 생명 경시 풍조를 제도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국회 시위 및 1백만 서명운동을 천명하고 나섰다.

70개 단체가 연대한 국민연합은 “지난 정부 때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낙태 약물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허가 신청에 대해 “법률 정비와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며 불허 방침을 반복해 왔다. 안전성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명백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정치적 선택이자 국민 안전을 무시한 폭거이며 생명 경시 풍조를 제도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했다.

이들은 “식약처도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 이유는 낙태 약물이 과다출혈, 감염, 폐혈증,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여성의 신체에 위험적인 약물이자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 때문”이라며 “특히 자궁 외 임신이나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여성이나 임의 복용할 경우, 자궁파열 및 영구 불임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25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 약물 허가에 대해 “여성의 안전을 무시한 폭거이자 생명 경시 풍조를 제도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탄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다. 미국 FDA는 낙태 약물을 허가한 이후 4,207건의 부작용을 보고받았으며, 그 중 26건은 사망, 1,045건은 입원, 603건은 수혈이 필요한 과다출혈, 413건은 감염 사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제연구(Charlotte Lozier Institute, 2021)에 따르면, 약물 낙태의 합병증 발생률은 시술 낙태보다 4배 이상 높았다”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여성 몰래 음료 등에 낙태 약물을 타서 복용하게 하거나, 성매매·인신매매 조직에서 여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가 보고됐다. 낙태 약물은 여성의 권리를 지켜주기는커녕,

여성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착취 수단이 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약물 낙태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 임신 10주의 태아 모습은 얼굴도 손가락 발가락도 심장도 우리와 똑같이 구성된 이미 인간의 모습을 지닌 존재”라며 “이런 아기를 약물로 죽이는 것은 살인이며 낙태 약물 도입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살인을 허용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낙태 약물은 단순한 고임약이 아닌, 한 생명을 종결하는 약물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연합은 “2024년 합계출산율 0.75명으로 세계 최저, 역사상 유례 없는 인구 절벽에 직면해 있다. 국가 존립이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이력

한 정부의 선택은 여성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출산 장려와 생명 보호 정책이지, 생명을 끊는 약물의 제도화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임신 10주 된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들고 밭언한 흥순철 교수(고려대 학교 산부인과 교수,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는 “아기는 임신 6주만 되어도 심장이 뛴다. 10주의 태아는 얼굴도 손가락 발가락도 심장도 우리도 똑같다. 약물 낙태 도입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살인을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약물 낙태는 여성에게 출혈,

감염, 폐혈증,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일부 회사가 국내에 도입하려는 낙태 약물에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성분은 임산부 자궁파열의 우려가 높은 약물”이라며 “임산부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약물 도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지영 교수(이화여대 서울병원)는 “낙태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은 태아 생존에 필요한 호르몬을 차단하고, 미소프로스톨은 강한 자궁 수축을 일으켜 태아를 배출시킨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통증과 과다출혈이 발생하며, 평균 9~16일간 출혈이 지속된다. 8%는 30일 이상, 1%는 입원·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낙태 실패율 또한 임신 10주를 넘기면 13% 이상으로 급증해 결국 수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자궁 외 임신이나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여성의 임의 복용할 경우, 자궁파열·영구 불임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FDA는 낙태약물 승인 이후 4,207건의 부작용을 보고했으며, 이 중 26건은 사망, 1,045건은 입원, 603건은 수혈이 필요한 과다출혈, 413건은 감염 사례였다. 2016년 이후 사망을 제외한 부작용 보고 의무가 폐지되어 실제 피해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낙태 약물 확산은 여성의 선택이라기보다 낙태 산업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경호 기자

기독교 세계관으로 분석하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전 세계를 울린 ‘우리주의’, 그러나 하나님 없는 치유는 한계”

세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CTC)가 최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교사, 그리고 다음세대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기독교 세계관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자리였다.

CTC는 세미나를 소개하며 “케이팝 데몬 헌터스, 전세계 사람들에게 열광하는 이 애니메이션 속에는 어떤 메시지와 세계관이 담겨 있을까? 이번 특강에서는 케이팝



유경상 CTC 대표 ©CTC

유 대표는 특히 주인공 루미의 갈등에 주목했다. 그는 “현대인은 소셜 미디어에서는 완벽한 페르소나를 보여주지만 현실에서는 상처를 감춘 채 살아간다”며, “루미가 ‘데몬 헌터’와 ‘K-팝 스타’라는 두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은 한국인의 관계적 자아 구조를 반영하며, 오늘날 세계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내면의 진실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한 고립과 단절이 남긴 상처를 언급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많

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나눌 이가 있다면…’이라는 갈망을 품게 되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루미가 멤버와 팬들의 지지 속에서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한국적 ‘우리주의(Uri-ism)’을 판타지로 표현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작품 속 가사 “홀로 어둠을 밝히라, 우리 노래 부르리라”를 인용하며 “흔자는 어둠이지만 함께하면 빛이 된다는 이 단순하고 명확한 메시지가 전 세계를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세환 기자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주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지 말라 했는데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생님, 저는 문선영의 머니토크 유튜브를 구독한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계속 좋은 내용을 흔들면서 보기만 하다가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 봤습니다. 제가 남편을 예의고 혼자서 애들을 키우고 살면서 매일 로지스틱 컴퍼니에서 하루에 10시간 씩을 일하며 성실히 살아 왔습니다. 덕분에 애들 모두 이제는 결혼을 해서 성실히 걱정 없이 살고 있고, 저도 하나님과의 은혜로 자꾸 몸 아파도 한 곳 없고, 이제는 은퇴를 6개월 앞둔 나�이가 되어서 평생 하고 싶었던 전도사업을 공부하며 조금씩 뛰고 있습니다. 나이는 올 해로 64세입니다. 애들 키우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저축도 못했고,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나마 은퇴를 한다고 하나님께 회사에 부었던 401k가 조금 있다는 것을 작년에 저에게 이 22만불을 재정상담을 받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22만불을 가지고 은퇴한다는 것을 안 이후로 자꾸 이 돈 생각과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이제서 돈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도 들고 남들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제 소설로 생활하기에는 떡없이 부족한데 이 22만불은 큰 돈인데 이 같동되는 두 가지 마음에 문선영씨에게 연락드려 봅니다.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랫폼을 돋고 있는 문선영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

생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같을하고 혹여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더 나아가 배신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 마음 귀하게 여기고 재정전문가로써 그리고 크리스챤으로서 제가 오늘은 짧게 말씀 드리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님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이지요. 주인을 섬긴다는 의미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현신하며 복종, 충성”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스스로에게 질문 해 보십시오. 401k에 22만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각자 그 돈에 현신하며 복종하며 충성하는 것일까요? 그 401k가 생긴 이후로 주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주님과의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나요? 분명 아닐 겁니다. 다만 집안에 우환이 생겼을 때 자녀들과 의논을 하는 것처럼, 직장 내 동료들 사이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동료들과 함께 의논하고 풀어나가는 것처럼, 지금 401k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플랜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돈을 섬기는 것, 돈의 노예가 되는 것, 무엇보다 돈이 최고라는 관점에서 손님을 도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허락해 주신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청지가 관점에서 손님들의 재정을 도와드리고, 재정교육을 시켜 드립니다. 이 청지기 비유는 누가 복을 16장에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재물을 활용하여 친구를 얻게 되는지, 오히려 어떻게 하늘이 보물로 바꾸는지, 저는 여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알리게 되는지 그 역할을 칭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2절에도 청지기를 “주인이 맡겨준 것을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의 주인인 하나님이 맡겨준 이 세상의 재산을 이제 충성스럽게 관리하고, 베드로 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처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과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복사하라”(10절). “만일 누가 맡는 거겠지요.”

저는 돈을 섬기는 것, 돈의 노예가 되는 것, 무엇보다 돈이 최고라는 관점에서 손님을 도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허락해 주신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청지가 관점에서 손님들의 재정을 도와드리고, 재정교육을 시켜 드립니다. 이 청지기 비유는 누가 복을 16장에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재물을 활용하여 친구를 얻게 되는지, 오히려 어떻게 하늘이 보물로 바꾸는지, 저는 여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알리게 되는지 그 역할을 칭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2절에도 청지기를 “주인이 맡겨준 것을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의 주인인 하나님이 맡겨준 이 세상의 재산을 이제 충성스럽게 관리하고, 베드로 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처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과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복사하라”(10절). “만일 누가 맡는 거겠지요.”

재정상담 누구에게 맡기시나요?

실험/신뢰/경험을 바탕으로 만족도 1위 재정전문가 문선영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운송연금/리테일투자/401k 투자/학자금/급세체결/상속

문선영의 머니토크

미국인이 봄에 대체로 금융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미국인들이 봄에 대체로 금융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대학로에서 매진 행렬을 기록한 연극 <사랑해 엄마>가
LA로 찾아옵니다!

사랑해 엄마

"엄마... 내 혼자서 잘 할수있나?"

"그라믄!
누구 아들인데!"

미국 LA 공연



조혜련 | 조지환 | 정지환 | 유민정 | 엄대 | 이서주 | 김연수

Downey Theatre
8435 Firestone Blvd
Downey, CA 90241
downeytheatre.org

Sunday
10.12 — 7pm
Monday
10.13 — 2pm, 7pm

Ticket
\$50 | \$60
(213) 357-1565
(562) 766-9494 (text)

주최 LOVING
주관 FORSHIP

